

등록번호- 서초, 라11865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2026년 7~8월
VOL.

288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갈라디아서 6:2 -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7월 1일 수요일 / 나이지리아 (7위)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2~5세 영유아와 교사 등 100여 명이 납치되고, 억류 중이던 기독교인들이 참수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 있는 연약한 아이들과 현지 형제자매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속히 무사히 풀려나고, 자녀를 빼앗겨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는 부모들에게 주님의 깊은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7월 2일 목요일 / 멕시코 (30위)

멕시코 게레로(Guerrero)주에서 카르텔 영역 싸움으로 폭탄 투하 드론과 총격, 방화 사태가 일어나 성도 400여 명을 포함한 주민 천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마을은 집과 농작물이 불타 생계 수단마저 전부 잃은 참담한 상황이며 무장 세력이 도로를 통제해 구호물자 전달과 피해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기독교인 가정들과 하이로(Jairo) 목사가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도록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구호가 이루어져 이 땅에 하루속히 폭력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 인도 (12위)

인도 마니푸르(Manipur)주에서 3년째 부족 간 유혈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목회자 일행이 무장 세력의 기습 총격을 받아 세 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목회자를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성도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총격으로 인해 크게 다친 부상자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마니푸르 땅의 모든 부족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 4일 토요일 / 모잠비크 (39위)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Cabo Delgado) 메자(Meza)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1946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교회와 인근 학교를 불태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참수와 납치 같은 끔찍한 만행이 자행되고 있으며, 불합된

주민은 강제로 혐오 연설을 들어야 하는 참혹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영적 안식처를 잃은 현지 성도와 영적 지도자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7월 5일 주일 / 파키스탄 (8위)

파키스탄에서 13세 기독교인 소녀 마리아 샤바즈(Maria Shahbaz)를 납치해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시키고 혼인하게 만든 가해자에게 피해 소녀를 다시 돌려보내라는 참담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기독교인들과 시민 단체가 거세게 항의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사건을 재조사하고 어린 소녀를 억지로 혼인시키는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혀 마리아가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파키스탄 사회가 18세 미만 혼인을 금지하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땅에 뿌리내린 끔찍한 아동 혼인 악습을 완전히 끊어내기를 기도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 콩고민주공화국 (29위)

콩고민주공화국(DRC) 동부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의 끔찍한 공격이 이어지며 수많은 성도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에게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거나 터무니없는 세금을 부과하고, 평범한 농부의 삶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학살이 속히 멈추고, 하루아침에 가족과 교회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현지 성도의 찢긴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버텨낼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7월 7일 화요일 / 타지키스탄 (27위)

최근 타지키스탄 당국이 일부 이주민의 범죄를 앞세워 무고한 아프간 난민 250여 명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이 여파로 현지에 숨어 신앙을 지키던 아프간 출신 비밀 신자마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억울한 강제 추방이 속히 멈추고, 하루아침에 낯선 곳으로 내몰린 아프간 형제자매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7월 8일 수요일 / 니카라과 (32위)

니카라과 정권이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면서, 이유도 모른 채 타국으로 쫓겨났던 아론(Aaron)과 비센테(Vicente) 목사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불안정하여 회복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일자리와 재정을 채워 주시며, 아직 타국을 떠도는 기독교인 250여 명도 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니카라과 교회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기를 기도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방글라데시에서 27년 전 이슬람에서 개종한, 아니쉬(Anish) 가정이 살해 위협 등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음에도 압박이 거세져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자녀는 학업을 중단했고, 가장은 생계를 잃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믿음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가정에 주님께서 안전한 피난처와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주시고, 온 가족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기도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 중국 (17위)

불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을 섬기는 T 형제 가정이 여러 난관 속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험난한 산사태로 길이 막히고 육신의 질병이 괴롭히는 데다, 현지 불교 사회의 거센 반발과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독교인이 극소수이며 훈련받은 사역자마저 부족해, 뿔뿔이 흩어진 성도가 깊은 고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척박한 곳에서 헌신하는 T 형제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며, 고립된 현지 성도를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 말레이시아 (51위)

말레이시아 밀림 속 오지 마을에서 아셀(Asher) 목사와 오픈도어 동역자가 험난한 지형과 장비 고장 등의 어려움을 뚫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

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며 오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아셀 목사와 동역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고장 난 사역 장비를 교체할 재정을 채워 주시며,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지 성도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7월 12일 주일 / 말리 (15위)

최근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주요 시설을 연쇄 공격하고 수도를 고립시키며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납치와 방화를 일삼고 있으며, 현지 기독교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 속에서 매일 두려움과 맞서며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선 말리 성도를 든든히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 인도 (12위)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 정부가 개종과 복음 전파를 막는 악법을 다시 시행하려 하자, 기독교인 수천 명이 폭우를 뚫고 모여 연합하여 기도로 평화 시위를 열었습니다. 주 정부가 부당한 종교 탄압을 멈추고 공정하게 일하며, 핍박의 위협 속에서도 현지 성도와 지도자가 두려움 없이 한마음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내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7월 14일 화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사비나(Sabina)는 무슬림 남편과 결혼한 뒤 남몰래 신앙을 키워왔으나 남편은 그녀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갓난아기를 출산한 지 7일 만에 내쫓았습니다. 홀로 아기를 데리고 믿지 않는 친정에 몸을 의탁한 사비나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자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비나와 아기에게 일용할 양식과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 시리아 (6위)

시리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몰함(Molham)이 사는 마을에 기독교 신앙을

모욕하는 폭도가 물려와 상점을 부수고 충을 쓰아대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몰함은 끔찍한 악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소망을 보여주었지만, 다섯 살 딸은 아빠가 잠시만 연락이 안 닿아도 울음을 터뜨릴 만큼 깊은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곧 둘째 출산을 앞둔 몰함의 가정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어린 자녀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며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 / 콜롬비아 (47위)

무장 단체가 신앙을 지키던 프레디(Fredy) 목사를 살해한 후, 남겨진 아내 에바(Eva)와 자녀마저 협박하며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협을 피해 낯선 은신처로 도망친 에바 가정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에바 가정을 안전하게 숨겨 주시고, 심장 질환을 앓는 자녀를 고쳐 주시며,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 / 쿠바 (24위)

최근 쿠바는 식량과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하고 매일 12~20시간씩 전기가 끊기는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기독교인을 향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성도와 사역자 가족을 부당하게 체포해 감옥에 가두었으며, 일상생활을 철저히 감시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숨 막히는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현지 교회는 남은 음식을 이웃과 나누며 믿음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쿠바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고, 지친 목회자와 성도에게 끝까지 견딜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18일 토요일 / 말레이시아 (51위)

말레이시아 방기(Banggi)섬 이슬람 세력은 가난과 교육 단절을 악용하여 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종해야만 구호물자를 주거나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취악한 성도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현지 교회는 글 읽기 교실과 성경 캠프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으며, 무슬림 아이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찾고 스

스로 성경을 읽는 등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굳건한 믿음을 심어 주시고, 교회가 거센 개종 강요를 이겨내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7월 19일 주일 / 베트남 (55위)

베트남 중부 고원의 자라이 부족 사역자인 피레오(P'Leo) 목사는 농사와 목회를 병행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역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나, 당국의 상시적인 감시와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사와 목회의 무게 속에서도 부족 성도를 신실하게 양육하는 피레오 목사에게 건강함을 부어 주시고, 당국의 감시와 복음 전파 방해가 속히 중단되길 기도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방글라데시 무슬림 폭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아타하르(Atahar)를 상점에서 내쫓아 생계를 빼앗고, 이웃과 친척마저 땅을 가로채며 90세 장모까지 쫓아냈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아타하르는 오히려 온 세상에 신앙을 뚝뚝하게 고백하게 되었다며 원망 없이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타하르의 가정에 새로운 생계의 길을 열어 주시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예배하는 일상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 21일 화요일 / 이라크 (18위)

릴리안(Lilyan)은 테러로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피난길에 오른 뒤에도 고된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학교는 무슬림 학생을 우대하기 위해 딸의 성적을 고의로 깎고, 관공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서류 처리를 미루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폭격 위협과 훗날 딸이 남편이 목숨을 잃은 지역으로 매일 통학해야 한다는 사실에 고국을 떠날 고민마저 들지만,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차별 속에서 홀로 딸을 키우는 그녀를 보호하시고, 딸이 두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 이란 (10위)

이란 정부가 두 달 넘게 인터넷을 차단하고 매일 청년을 사형에 처하는 등 나라 전체가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끼니를 거르는 가난 속에서도 현지 성도는 남은 식재료를 모아 이웃과 나누며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든든히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란 땅에 참된 자유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가 부족해 영적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현지 사역자가 이슬람 배경 신자(MBB)를 모아 성경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영적 갈급함에 시달리던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핍박을 견딜 힘을 얻고, 같은 아픔을 가진 지체와 마음껏 예배하며 믿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현재 오픈도어는 든든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훈련 사역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성도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많은 성도에게 말씀을 배울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24일 금요일 / 시리아 (6위)

시리아 기독교인은 무장 폭도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터와 학교 같은 일상에서도 탄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는 거친 협박에 청년이 일자리를 잃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어린 기독교인 학생에게 호통을 치며 괴롭히는 등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위협 속에서도 성도는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센 핍박 속에 놓인 시리아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시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일어서며, 차별이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 25일 토요일 / 콜롬비아 (47위)

대선을 앞둔 콜롬비아 남서부에 무장 반군이 연쇄 폭탄 테러를 일으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장 단체는 선거에 개입하고자 교회를 향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동역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

성도가 외출을 꺼리면서 시골 교회가 아예 문을 닫거나 예배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폭력과 위협에 노출된 콜롬비아 성도와 목회자 가정을 지켜 주시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오기를 기도합니다.

7월 26일 주일 / 인도 (12위)

인도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 부족 마을에서 힌두교 사회가 기독교인에게 개종을 강요하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나뭇잎과 딸감조차 줌지 못하게 숲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웃 주민은 개종하거나 마을을 떠나라며 몰아세우고 목회자의 방문마저 막았지만, 경찰은 부당한 종교 자유법을 핑계로 기독교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고 고립된 막막함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립된 인도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양식을 넉넉히 채워 주시고, 거센 협박을 이겨낼 용기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 / 투르크메니스탄 (35위)

투르크메니스탄 발카나바트(Balkanabat)에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려던 성도 약 50명을 경찰과 국가안보부가 무더기로 구금했습니다. 당국은 성도를 끌고 가 거세게 심문하고, 특히 성경을 지닌 성도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며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으박질렀습니다. 이슬람 배경 신자를 철저히 탄압하는 탓에 현재 구금된 성도의 생사조차 알 수 없으며, 남겨진 가족마저 극심한 공포 속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끌려가 모진 폭력과 협박을 받는 투르크메니스탄 성도를 지켜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가족을 위로하시길 기도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 / 방글라데시 (33위)

이슬람 배경 신자 압둘(Abdul)은 억울하게 90일 넘게 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온 가족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는 압둘이 집을 나설 때마다 다시 감옥에 갇힐까 봐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 발길을 끊어 생계마저 막막해진 상황에서도 압

들은 곳곳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갇힌 압둘의 가족을 지켜 주시고, 막막한 생계의 문을 열어 주시며,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기를 기도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 말리 (15위)

말리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국방부 장관이 목숨을 잃는 등 극심한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부 정권은 안보를 핑계로 기독교인을 감시하고 교회 의 보호 요청마저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담한 위기 속에서도 현지 성도는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곳곳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러와 폭력으로 무너진 말리를 기쁘히 여기사 두려움에 떠는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 멕시코 (30위)

실비아(Silvia) 부부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이 물과 전기를 끊고 자녀까지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진 핍박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을 급히 피신시켰으나, 마을 주민들이 남편을 끌고 가 감옥에 가두면서 참담한 이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끝에 마침내 온 가족이 기적처럼 다시 만난 부부는 가장 어두운 순간 가정을 살린 것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려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깊이 위로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굳건히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 북한 (1위)

중국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강대국 간의 대립은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 성도를 돕는 비밀 선교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탈북민 안전 가옥과 사역 통로가 맨 먼저 위협해지므로, 국제 사회의 힘겨루기는 고립된 탈북 성도의 생존과 신앙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해소되도록 각국 지도자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고,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 내 탈북 성도를 돕는 선교 공동체의 안전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8월 1일 토요일 / 키르기스스탄 (40위)

키르기스스탄 국가안보부(NSC)가 파벨 슈라이더(Pavel Shreider) 목사를 강제로 국경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파벨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몰아 강제 폐쇄하고, 목사를 체포해 무자비하게 고문하며 옥살이를 시킨 끝에 조국에서 영영 내쫓았습니다. 파벨 목사와 아내 넬라(Nelya)는 현재 머물 곳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현지 성도 역시 극심한 탄압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조국에서 쫓겨난 파벨 목사 부부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허락하시고, 고문과 핍박 속에 남겨진 키르기스스탄 성도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8월 2일 주일 / 이란 (10위)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중동 전역으로 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격과 정전, 통신 차단이 이어지고 주변 나라로 번진 미사일 공격으로 생업과 경제가 마비되는 혼란 속에서도, 현지 성도는 위태로운 하루를 견디며 고국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란과 중동의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의료 지원이 급한 임산부, 어린 생명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8월 3일 월요일 / 쿠바 (24위)

쿠바는 하루 12~20시간에 달하는 정전과 심각한 식량 및 약품 부족으로 극심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끔찍한 경제난과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현지 교회는 식량을 나누고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정부가 교회의 구제 사역마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시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거센 감시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는 현지 교회를 보호하시며, 핍박을 견디는 성도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 베트남 (55위)

베트남의 비 낭 프엉(Bi Nang Xuong)은 교회를 개척하는 아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개종 사실을 안 공산당은 즉각 그를 당에서 쫓아내고, 생계에 필수적인 농업 지원금마저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오히려 오랜 악습을 끊어내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그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시고, 아들 비 낭 풍(Bi Nang Pong)의 교회 개척 사역을 보호하시며, 이 가정이 마을에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 이란 (10위)

세타레(Setareh)는 자신이 일하는 미용실에 온 여성에게, 정부의 삼엄한 감시와 체포의 두려움을 뚫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건 이 결단으로 여성과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현재 세타레는 청년 성도를 이끌고 거리를 헤매는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며 귀한 사역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앞에서도 굳건히 복음을 전한 세타레를 강건하게 붙드시어 헌신적인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를 더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6일 목요일 / 스리랑카 (65위)

프리아(Priya)는 불교 신자인 남편과 시댁 식구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20년째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편이 성경을 불태우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지만, 흔들림 없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력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든 그녀에게 깊은 평안을 주시고, 핍박하는 남편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며, 온 가정이 참된 구원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 예멘 (3위)

자이드(Zaid)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오랜 온라인 양육 끝에 목숨을 걸고 공공 수영장에서 비밀리에 세례받았습니다. 개종 사실을 안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가족이 집 밖으로 내쫓는 핍박을 가했지만, 자이드는 고난을 피해 도망치는 대신 예멘에 남아 동족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진 핍박에도 조국에 남기를 선택한 자이드를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고, 깊은 고립과 갈등 속에 놓인 예멘 성도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며, 거센 탄압 앞에서도 현지 교회가 뜨거운 연합과 교제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 우즈베키스탄 (25위)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이슬람 사회가 미등록 교회를 급습하고 개종 성도를 거세게 핍박하는 끔찍한 이종교 속에서도, 현지 성도는 깨끗하게 십자가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센 억압과 적대감 속에 놓인 우즈베키스탄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당국의 무자비한 통제를 꺾어 주시며, 어떤 위협 앞에서도 현지 교회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기를 기도합니다.

8월 9일 주일 / 시리아 (6위)

시리아에서는 가족과 지역 사회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의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내쫓으며 살해 협박까지 가하는 극심한 핍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 속에서도 기독교인의 참된 평안을 목격한 이슬람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으며, 현지 교회는 핍박받는 성도와 피난민에게 피난처를 내어주고 생필품을 나누며,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 앞에서도 십자가를 택한 시리아 성도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현지 교회의 사역을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 니카라과 (32위)

니카라과 공산 정권이 부당한 혐의로 사역자와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가정을 강제로 추방하는 끔찍한 탄압 속에서도, 현지 교회는 삼엄한 감시를 뚫고 십자가 신앙을 굳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에 갇히고 흠어

진 니카라과 성도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교회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정권의 완악함을 꺾어 주시며, 거센 핍박 앞에서도 현직 교회가 하나 되어 담대히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 / 베네수엘라 (69위)

수사나(Susana)는 복음을 억압하는 범죄 조직의 끔찍한 위협과 교회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거센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과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를 돌보는 귀한 사역을 담대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위협 앞에서도 십자가를 놓지 않는 수사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고, 소외된 이웃을 품는 헌신적인 사역 위에 크신 지혜를 더하시며, 폭력과 억압에 갇힌 베네수엘라 땅에 생명의 복음이 힘 있게 뻗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 / 수단 (4위)

수단은 끔찍한 내전의 혼란 속에서 당국과 극단주의 세력이 성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강제 개종을 강요하며 수백 곳의 교회를 파괴하고 사역자를 가두었으며, 완전히 고립된 개종 성도와 원주민 성도는 일터와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학대를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혹한 내전과 폭력 속에 남겨진 수단 성도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현지 교회가 십자가 소망으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기를 기도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 이란 (10위)

개신교로 개종한 가잘 마르즈반(Ghazal Marzban)성도가 반체제 혐의로 9년 8개월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파킨슨병을 앓는 남편은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투옥되어 단식 투쟁 중인 가잘 마르즈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투병 중인 가족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 시리아 (6위)

제니(Jenny)는 성 엘리야 교회(St. Elias Church) 자살 폭탄 테러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깊은 절망에서 상처를 딛고 일어난 제니는, 현재 트라우

마 상담가로 나서 테러의 공포에 떠는 어린아이와 이웃의 마음을 치유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혹한 비극으로 상처 입은 제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헌신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 시리아 땅의 아픔이 회복되며, 끔찍한 테러를 목격한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 키르기스스탄 (40위)

국가보안위원회(NSC) 비밀경찰은 국가 등록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수도 비슈케크(Bishkek)의 침례교회를 급습하여 예배당 문을 봉인하고 부당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드미트리 골로빈(Dmitry Golovin) 목사는 당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2026년 6월 법정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의 예배당 봉인과 부당한 벌금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키르기스스탄 성도를 강하게 붙드시고, 6월 법정 재판을 앞둔 목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16일 주일 / 소말리아 (2위)

개종 시 시민권 박탈과 사형을 선언하는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신앙을 숨긴 채 믿음을 사수하는 소말리아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예배할 처소조차 없는 위기 속에서도 비밀스러운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긴밀히 연합하게 하시고, 내전과 극심한 기근으로 신음하는 소말리아 땅에 참된 안정과 종교의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 베트남 (55위)

청년 낫 빈(Nhat Binh)은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모진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기독교 서적을 모조리 불태우며 폭언을 퍼붓고, 유산을 주지 않고 집에서 당장 내쫓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지 사역자의 위로와 기도로 마음을 다잡은 낫 빈은 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묵묵히 가족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과 두려움 속에 놓인 성도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분노로 가득 찬 가족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 / 튀르키예 (41위)

튀르키예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역사적인 땅이지만, 아픔을 거치며 기독교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특정 두 교파만 인정하며 성직자 양성을 금지하고 있고, 가톨릭과 개신교는 공식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법적 제약을 받습니다. 국가가 이슬람 중심 정책으로 종교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는 차별을 견디며 외롭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온 튀르키예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법적 제약과 차별 속에서도 기독교 공동체가 안전하게 모여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 북한 (1위)

수만 명의 북한 탈북민이 체류 중인 당국의 디지털 감시망으로 인해 심각한 체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한국행을 준비하던 두 명의 탈북 여성이 비밀 메시지 감시로 인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혹한 신문과 함께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의 두려움으로 공동체와 연락을 끊은 채 깊은 고립과 소외감에 직면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 하시며,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민을 돕는 현지 사역자와 선교 공동체에 안전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 라오스 (28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칸야(Kanya) 부부와 쿤(Khoun) 목사는 큰 박해를 만났습니다. 마을 주민은 집을 무너뜨리고 고향에서 내쫓았습니다. 현재 전기와 수도조차 없는 깊은 숲속 천막에서 지하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난 고난 속에서도 숲속 천막에 모여 예배하는 라오스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역자와 성도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 미얀마 (14위)

내전과 차별, 지진 피해가 겹친 미얀마 성도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애비게일(Abigail) 사모는 창업 기술을 배워 지역 여성에

게 전수하며, 무너진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교회의 소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과 차별의 이중고를 겪는 미얀마 성도의 터전과 심령을 치유하시고, 창업으로 가정과 교회를 부양하는 사모의 사역과 지역 여성의 소상공인 사업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2일 토요일 / 부탄 (34위)

데마(Dema) 성도는 자녀의 병 고침을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남편과 주민들은 데마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남편은 데마와 다섯 딸을 집에서 내쫓았고, 마을 주민은 조롱했습니다.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어오던 데마는 최근 작은 가게를 열어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대가를 치르며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견뎌낸 데마와 자녀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지원받은 작은 가게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새 거처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3일 주일 / 수단 (4위)

수단은 군사 쿠데타와 내전이 겹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과거 기독교를 탄압하던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고 종교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슬람에서 개종한 성도와 비아랍계 성도를 한층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전과 군부의 압박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진 수단 성도와 피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이슬람에서 개종하여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성도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4일 월요일 / 시리아 (6위)

시리아의 정권 교체와 폭탄 테러는 기독교 인구를 급감시키며 교회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위기 속에서, 바샤르 라함(Bashar Raham) 신부와 선교 공동체는 상처 입은 성도와 어린이의 마음을 돌보는 치유 상담과 생계 지원으로 복음의 씨앗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정세 불안과 생계 위협 속에서도 시리아 땅을 지키는 성도에게 안전을 허락하시고, 테러의 상처를 입은 성도와 어린이가 상담 사역을 통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 / 이라크 (18위)

이라크에서 이슬람을 떠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가족과 사회의 보복 속의 비밀리에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직장은 개종 성도를 해고하여 경제적 시련을 안겨주며, 양육하는 사역자 역시 매일 위협에 직면합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할 동역자 없이 고립된 환경에서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면과 박해 속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는 이라크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혼을 양육하는 사역자와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 이란 (10위)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억압하고자 전면 차단했던 인터넷이 수개월 만에 제한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통신 두절로 온라인 예배와 말씀 양육이 완전히 끊어졌던 지하 가정 교회 성도는, 마침내 모국어로 설교를 듣고 영적 교제를 회복하며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압신(Afshin)은 끔찍한 유혈 사태와 고립이 남긴 깊은 상처는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것이며, 이란 땅의 참된 소망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폭력과 상실로 멍든 이란 국민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 알제리 (20위)

알제리 정부는 이슬람 이외의 예배를 제한하는 법령으로 교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식 교회 등록을 거부함에 따라 성도는 구금과 벌금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정에서 지하교회로 비밀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통제 속에서도 비밀리에 모여 예배하는 알제리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구금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하교회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 모로코 (23위)

이브라힘(Ibrahim)은 이슬람교도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 50년 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의 외면과 폭력 속에서도 이브라힘은 조국을 떠나지 않고 비밀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브라힘 성도를

신실한 증인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이 외면한 개종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모로코 가정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늘고 있습니다. 아랍계 기독교인 역시 최근 발생한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유대인과 아랍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를 세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아랍계 기독교인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30일 주일 / 시리아 (6위)

시리아의 한 마을에 폭도가 몰려와 기독교 신앙을 모욕하며 총을 쏘고 차량을 부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가장인 니하드(Nihad)는 유일한 생계 수단인 차량과 일자리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무사히 피신했으며, 현재는 지역 교회가 나서서 니하드의 생계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의 위협에 놓인 시리아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무너진 생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 / 팔레스타인 (63위)

한 기독교 청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낙심한 또래를 말씀과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여 소수만 남았지만, 성도와 사역자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많은 청년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슬람에서 개종하여 위험에 직면한 성도와 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오픈도어』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penDoors

(0658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5,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